

중공 동북당 조직의 조선민족항일혁명투쟁 인식과 방침 정책*

김 성 호**

[초 록]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민족은 19세기 중엽부터 조선반도에서 월경천입하여 점차 형성된 새로운 한개 소수민족이다. 1910년 8월 조선이 일본에게 강점당한 후 조선의 애국지사들은 분분히 중국 동북지역으로 건너와 조선민족 이민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반일민족투쟁을 계속 진행하였다. 1921년에 탄생한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의 민족이론을 준수하여 시종일관하게 각 민족의 평등, 단결과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최초부터 동북 조선민족의 항일투쟁에 대하여 동정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1930년 이래 동북조선민족 공산주의자들은 공산국제의 “일국일당”(一國一黨) 조직원칙과 조선공산당 중앙조직이

* 본문은 2015년도 중국사회과학기금 서부항목(번호: 15XSS006) 『朝鮮反日民族解放运动与中国共产党关系研究』와 한국 해외학국학 중핵대학건설지원항목(번호: AKS-2015OLU-2250001)의 계단성 연구성과임.

** 중국 연변(延边)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역사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

주제어: 중국공산당, 조선민족항일혁명, 방침정책, 역사 의미
Chinese Communist Party, Korean Anti-Japanese Revolution, Policy, Historical Meaning

이미 해체된 상황에 근거하여 그들 대부분이 개인 신분으로 중공 동북당조직에 가입하여 중국혁명에 직접 참가하였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을 통일영도하여 장기간 항일혁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민족을 진일보로 요해하고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경험교훈을 부단히 접수하면서 점차적으로 동북조선민족의 역사특점과 그들의 항일혁명특수성에 완전히 부합되는 일련의 정확한 방침정책들을 제정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조선민족 간부들을 충분히 믿고 중용하며 조선반일민족독립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차 동만(东满, 지금의 연변지역)에서 일제식민통치를 뒤엎고 조선민족“자치구”를 건립할 것을 제출한 것 등이다.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서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은 중국 동북혁명과 조선혁명을 모두 완성해야 하는 “두 개의 혁명사명”(双重革命使命)을 짊어지고 동북의 여러 민족들과 긴밀히 단결하여 어깨 결고 함께 싸우면서 동북항일혁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큰 역할을 하였으며 돌출한 공헌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점차 김일성 장군을 위수로 한 조선공산주의혁명의 견강한 영도핵심역량이 형성되었으며 중국 조선족사회의 제1대 혁명간부들이 양성되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확한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온 위대한 투쟁역사이며 동북 여러 민족이 대단결을 실현하고 함께 항일혁명승리를 취득한 빛나는 역사 과정이며 동시에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이 함께 동방 반파쇼 전쟁터에서 어깨 결고 싸워 선혈과 생명으로 중조 두 나라의 “동지와 형제”의 견실한 우의친선을 마련한 귀중한 역사기록이기도 하다.

본문은 주요하게 중국공산당 동북조직의 역사문헌자료들과 중국역사학계의 연구성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 시기의 중공 동북당조직이 조선민족 항일혁명운동에 관한 인식과 방침정책 및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동북항일유격전쟁에서의 중요한 역사지위(地位)와 돌출한 역할 등을 논하고자 한다.

1. 동북조선민족의 역사적 특점과 항일혁명투쟁 특수성

중국동북의 조선민족은 주로 19세기 중엽¹⁾부터 조선반도에서 월경천입으로 동북에 점차 형성된 한 개 새로운 과정소수민족으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특징적인 역사문화속성(属性)과 시대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국과 가까운 중조변경지역에 민족집거지역들을 형성하였다.

유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북조선민족의 인구는 1919년에 43만여 명, 1925년에 53만여 명, 1931년에 67만여 명이었는데, 인구분포상황은 길림성에 49만여 명, 봉천성(지금의 요녕성 일대)에 16만여 명, 흑룡강성에 1만 6천여 명이였다.²⁾ 다른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32년 말 동북조선민족의 인구분포상황은 길림성에 48만여 명(그중 동만 즉 지금의 연변지역에 41만여 명), 봉천성에 14만여 명, 흑룡강성에 1만 8천여 명, 내몽고지역에 6백여 명, 요녕성 남부의 관동주일대에 2천 2백여 명, 열하성(热河省)에 6백여 명, 산해관 이남의 관내지역에 3천 5백여 명이였다.³⁾ 조선민족의 약 73.5%가 길림성에 거주하였는데, 62.2%가 길림성 동남부의 동만에 집중하여 중국 조선민족의 가장 큰 집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만의 조선민족인구상황은 1907년에 73,000명, 1911년에 127,500명, 1919년에 279,150명, 1926년에 356,210명이였다.⁴⁾

중국 동북의 중조변경지역에 천입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파산농민들로서 거의 전부가 편벽한 농촌과 인연이 희소한 미개발지역에 자리

1) 국내의 학계에서 중국조선민족의 역사상한(历史上限)문제에 관하여 토착민족설, 명말청초(17세기)설, 19세기 중엽설, 1945년 광복설, 1949년 건국설 등이 있는데, 현재의 쟁론초점은 대개 명말청초설과 19세기 중엽설에 집중되고 있음. 필자는 19세기 중엽설을 따르는 바임.

2) 伪满州国民政部总务司调查科编, 『在满朝鲜人事情』, 大同二年(1933) 12月14日, pp. 5-6.

3) 朝鲜总督府编, 『最近に於ける朝鲜治安状况』, 1966年版, p. 290.

4) 沈茹秋, 『延边调查实录』(1931年) 延边大学出版社1987年版, pp. 15-16.

잡게 되었으며 자연분산적으로 규모가 각기 다양한 민족집거촌락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객관조건상 당시 동북 중조변경지역의 인구가 희소하였고 미개척 토지가 많았으며 또한 부패무능한 봉건청조와 군벌통치력의 미약 등 비교적 낙후한 사회발전상황 그리고 중화문화의 거대한 포용력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같은 시기 제일 조선민족사회와 비교하면 이 특점들이 보다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 주관조건에서 보면, 주요하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겠는데, 하나는 역사상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이 근대민족으로서의 거의 모든 사회문화특성을 형성한 후 천입하여 나름대로 민족문화생활권을 이루려는 강력한 염원과 관계된다. 다른 하나는 그 대부분이 가난한 파산농민의 신분으로 살길을 찾아 부득불 월경천입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약소민족의 매우 불안한 현실상황과 직접 관계된다.

중조변계인 두만강 북안인 동만의 경우, 조선민족이 다수민족으로 되었는데, 지역인구에서의 조선민족인구비례는 1907년에 80.0%⁵⁾, 1926년에 80.2%⁶⁾, 1930년에 76.4%⁷⁾를 차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동만지역의 조선이민들은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보다 충분히 보존할 수 있었고 조선모국과의 정치,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방면의 긴밀한 연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불가피하게 자연적으로 중국사회생활과 문화에 날로 적응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자기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민족사회문화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여 당시 동만지역 조선민족사회문화는 심지어 “조선의 연장선”⁸⁾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5) 在满日本帝国大使馆编纂, 『在满朝鲜人概况』, 昭和9年版, p. 58.

6) 沈茹秋, 『延边调查实录』(1931年) 延边大学出版社1987年版, p. 15.

7) 伪满州国军政部顾问部, 『满洲共产匪研究』, 第一辑, 康德三年(1936). 1969年版, pp. 545-546.

8) 「朝鲜共产党满洲总局的报告」, 1930年1月30日. 中央档案馆, 辽宁省档案馆, 吉林省档案馆, 黑龙江省档案馆合编, 『东北地区革命历史文件汇集』(아래는 『东北文件汇集』이라고 간략함)(甲4), 1989年版, p. 395.

둘째, 동북조선민족의 항일혁명투쟁이 보다 강렬하였다.

조선인들의 절대다수는 19세기 중엽 이래 생활 빈궁과 일제침략으로 살길을 찾아 부득불 개인 신분으로 중국 동북지역으로 월경천입하게 되었는데,⁹⁾ 그 대부분은 어떠한 생산기초와 생활자금도 없었고 또 일제 및 중국봉건군벌세력과 지주계급의 여러 가지 중첩되는 압박과 착취를 받게 되었다.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고 생활은 극도로 빈궁하였다. 1910년 8월 조선이 일제에게 강제로 “합병”된 후 중국동북의 “조선인들은 국가가 없고 세력이 없으며 또 재산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하층의 민족으로 몰락되었으며”¹⁰⁾ 그 어떠한 사회정치적 권리도 없이 극히 비참한 사회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동북조선민족은 그들의 생활환경, 경제기초와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보다 강렬한 반일투쟁정서와 사회혁명요구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농민들의 혁명의식은 여러 중국농민들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제일 높다. 이것은 한국농민들이 한국이 일본에게 병탄된 후 그 압박과 착취를 견딜 수 없어 쫓겨 만주로 건너왔기 때문에 반일의식이 제2의 천성으로 되었고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고양되어 있다.”¹¹⁾ 두말할 것 없이 이는 일제의 야만적인 침략과 잔혹한 식민통치가 조성한 것이었다. 당시 일제의 정보기관에서 중국동북 “각 지방의 공산주의운동이 예외 없이 모두 이주한 조선농민들 속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¹²⁾는 분석이나 중국공산당조직에서 “동만의 혁명영향은 일반적으로 기타 지방에 비교하여 크다. ……

9) 유관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들이 중국동북으로 월경이민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와 이유는 생활 곤란과 돈벌이 등 경제 원인이 94.6%, 반일투쟁 등 사회정치원인과 기타가 5.4%를 차지함. 李勛求, 『滿洲와 朝鮮人』, 平壤崇實專門學校出版1932年版, pp. 102-103.

10) 「昭和7年3月25日附在間島岡田總領事發信芳澤外務大臣宛」, 『外務省警察史(間島の部)』, 1-1, 外務省, p. 7703.

11) 「江宇給中央的报告」, 1931年5月11日, 『東北文件汇集』(甲31), 1989年版, p. 65.

12) 偽滿洲國軍政部顧問部, 『滿洲共產匪の研究』, 第一輯1969年版, p. 28.

한국민중들은 장기간에 걸쳐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았었고 또 국민당 그 시기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생활이 악렬한 등 원인이 있기 때문에 투쟁과 인식이 일반적으로 중국인들보다 높다¹³⁾고 한 평가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동북조선민족의 최초의 사상정치운동은 바로 “조선의 연장선”(朝鮮的延長線)¹⁴⁾에서 전개되었다.

중국에 지금 5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지만, 조선민족처럼 근대이래 월경천입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기타 소수민족은 결코 없다. 때문에 중국 조선민족의 가장 돌출한 사회역사문화 특성의 하나는 바로 조선이라는 자기 원래의 조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월경천입한 조선인들이 중국 동북 땅에 거주하여 점차적으로 동북에서 민족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사실상에서 이미 중국의 한개 새로운 소수민족으로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중국 국적까지 획득¹⁵⁾하였지만, 조선반도에

13) 「中共东满党团特委工作报告」, 1933年10月25日, 『东北文件汇集』(甲30), 1989年版, p. 8.

14) 「朝鮮共产党满洲总局的报告」, 1930年1月30日, 『东北文件汇集』(甲4), 1989年版, p. 395.

15) 당시 동북조선민족 중에서 이미 중국국적에 가입한 인구비례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설이 있음. 1) 1929년 4월 “동삼성 귀화한족(归化韩族) 대표단”이 중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조선민족 약 130만 명(요녕성 50만 명, 길림성 70만 명, 흑룡강성 10만 명)중에서 약 12만 명(요녕성 1만 명, 길림성 10만 명, 흑룡강성 1만 명)이 이미 중국국적에 가입하여 전체 조선민족인구의 약 9.2%를 차지한다고 함(韩国秋宪树编, 『资料韩国独立运动』, 第4卷下, 1975年10月, p. 1495 참조). 2) 남경 『中央日报』1931년 8월 6일보에 기재된 「东三省韩侨之人口与职业」에 따르면, 동북조선민족인구는 94만 2천여 명, 그중에서 중국국적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5만 1,858명(요녕성 8,310명, 길림성 3만 6,160명, 흑룡강성 7,388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함(韩国秋宪树编, 『资料韩国独立运动』, 第4卷下, 1975年10月, p. 1384 참조). 3) 1932년 10월 15일 북경 『外交月报』 제1권 제4기에 발표된 「国际联合会调查团报告书全文」에 따르면, 1931년 “9·18사변”까지 연변의 조선민족 중에서 중국국적에 이미 가입한 인구는 약 15% 정도라고 함(韩国秋宪树编, 『资料韩国独立运动』, 第4卷上, p. 271 참조).

서 수천 년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그들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의식 그리고 뿌리 깊은 향토관(乡土观), 조국관(祖国观) 등이 짧은 기간 내에 쉽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었다. 하물며 그들의 절대다수는 빈궁과 일제침략의 압박으로 부득불 살길을 찾아 건너온 사람들이었으며 또 일부분은 반일민족독립의 큰 뜻을 품은 애국지사들이었다.

주지하다시피, 1910년 조선이 강제로 “합병”되어 일본의 독점(独占)식 민지로 전락된 후 일제를 몰아내고 국가와 민족의 독립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가 조선민족에게 부여한 제일 주요한 사명으로 되었다. 조선국내의 반일독립운동이 일제의 극히 엄밀하고 잔혹하며 고지능(高智能)적인 진압으로 말미암아 거의 전부 실패되면서 일부분의 애국지사들과 반일의병들은 부득불 국외로 전의(转移)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0년 전후부터 시작하여 중국으로 전의한 조선의 애국지사들과 의병들은 망국의 한과 민족의 복수심을 지니고 동북지역을 “조국광복의 책원지(策源地)”¹⁶⁾로 여기었다. 그들은 중국 지방당국과 인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조선민족 이민사회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족단체들을 조직하였으며 반일무장투쟁을 적극 준비하였다.

1919년 조선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제식민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당한 후 중국동북 조선민족의 반일세력은 곧바로 무장투쟁의 기치를 추켜들었는데, 이 시기 연변지역 조선민족의 각종 반일무장력량은 약 3천명에 달하였다.¹⁷⁾ 그들은 두만강, 압록강 북안의 중조변경지역을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로 하고 조선국내에 적극적으로 진군하여 무장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동북에 침입하여 그들을 토벌하려고 하는 일제의 침략무력과도 격렬한 무장투쟁을 진행하였는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20년 6월의 봉오동전투와 10월의 청산리전역이라고 하겠다. 이들이 단순한 민족

16) 「江宇关于住满韩侨之情势报告」, 1929年7月25日, 『东北文件汇集』(乙2), 1991年版, p. 21.

17) 朝鮮總督府警務局編, 『朝鮮の治安狀況』, 昭和二年1927年版, p. 279.

주의 기치 밑에서 조선의 독립해방을 위하여 진행한 반일무장투쟁이었고 중국에 적지 않은 외교문제들을 가져왔었지만, 그들은 필경 중국동북대지에서 처음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첫 총소리를 울렸다고 할 수도 있다.

20세기 20년대 중엽 이래 동북조선민족의 민족주의반일운동은 점차적으로 공산주의혁명운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25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공산당은 이듬해 5월16일에 중국 흑룡강성 주하현(珠河县, 현재 尚志市) 일면파(一面坡)에서 국외조직으로 만주총국(滿洲总局)을 건립하였으며 산하에 동만, 남만(南滿)과 북만(北滿)3개의 구역국(区域局)을 조직하였다. 이 조직들도 조선공산당내부 파벌분쟁의 연장선에서 몇 개의 파벌로 분열되었다. 하지만 중국 동북사범대학 이홍문(李鴻文) 교수가 지적하다시피 “그들은 제각기 일부분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역량들을 단결하였고 군중단체들을 조직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을 쟁취하는 선전(宣傳)과 투쟁을 견지하였는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¹⁸⁾ 당시 동북의 조공당 활동이 오직 “조선혁명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면서 “유일하게 투쟁하는 대상은 오직 일본제국주의 뿐이었고”¹⁹⁾ 중국혁명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동북 조선민족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반일혁명사상을 선전하여 사상과 조직상에서 30년대 이래의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위하여 비교적 견실한 사회기초와 기본적인 핵심역량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 李鴻文, 『30年代朝鮮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 東北師範大學出版社1996年版, p. 23.

19) 「中共滿洲省委巡視員廖如願關於巡視東滿吉敦路沿線各縣的工作報告」, 1930年9月20日, 『東北文件匯集』(甲5), 1988年版, p. 200.

2. “9·18사변” 전 중공 동북당조직의 조선민족항일혁명투쟁 인식과 방침정책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된 중국공산당은 탄생된 최초부터 “전 세계 무산자는 연합하라”는 구호를 자기의 국제주의 원칙으로 하였다. 1921년 7월에 탄생한 중국공산당의 “첫 번째 강령(纲领)” 제4조는 “무릇 본 당의 강령과 정책을 승인하고 충실한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원 1명의 소개를 거치면 그의 성별(性别), 국적(国籍)에 관계없이 모두 당원으로 접수될 수 있으며 우리의 동지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⁰⁾ 1922년 7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첫 번째 “장정”(章程)의 제1장 제1조는 “본당 당원은 국적, 성별의 구별이 없는 바, 무릇 본당의 선언 및 장정을 승인하고 본당을 위해 충실하게 봉사할 것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본당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¹⁾ 중국에 거류하는 조선민족 혁명자들도 위의 원칙조건에 근거하여 중공당조직에 가입하고 중국의 반제반봉건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할 수 있었다. 1923년 한락연(韩乐然)²²⁾이 상해에서 중공당에 가입한 것을 효시로 하여 중국에 거류하는 조선혁명자들은 분분히 중공당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27년 중공 강소성위 상해법남구(江苏省委上海法南区)의 “한인특별지부”(韩人特别支部)의 건립, 그리고 조선혁명자 약 200명이 중공당 역사에 유명

20) 「中国共产党第一个纲领」, 1921年, 『中共中央文件选集』第一册, 中央党校出版社1992年版, p. 3.

21) 『中共中央文件选集』第一册1992年版, p. 93.

22) 韩乐然(1898-1947), 韩光宇라고도 함, 吉林省 龙井에서 출생. 1919년 용정의 “三·一三反日示威”에 참가한 후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 이듬해 중국 상해로 감. 1923년 상해미술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중국공산당에 가입, 중국조선민족중 제일 먼저 중공당조직에 참가한 분임. 崔龙水, 「革命艺术家韩乐然」, 『朝鲜族研究论丛』(3), 延边人民出版社1991年版, pp. 271-285; 中共延边州委党史研究所编, 『延边历史事件·党史人物录』, 1988年版, pp. 43-44 등 참조.

한 광주기의에 참가한 사실 등이다.

중공 만주성위도 시종일관하게 무산계급 국제주의 입장과 중공당의 민족정책을 견지하고 관철하였는바, 민족평등, 민족단결과 민족해방을 쟁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일찍부터 동북조선민족의 반일혁명투쟁을 동정하고 지지하여 왔다. 1927년 10월 중공 동북 제1차 당원대회에서 통과된 “우리가 만주에서의 정강”과 “만주 농민운동결의안(决议案)”에는 “중국, 한국, 일본, 로씨아 인민들의 동등한 대우”,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이 자경지득(自耕自得)하게 하며”²³⁾ “산동, 직예와 조선에서 온 난민들이 일률로 토지소유권을 가지게 한다”²⁴⁾는 등 구호들을 명확하게 제출하였다. 1928년 2월 중공 만주성위에서 통과한 “동변도공작 결의안”(东边道工作决议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 동북에 천입한 100여 만 조선농민들의 생활은 “중국의 농민들과 비교하여 더욱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정부”, “민족당”과 “광범위한 군중조직”을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1천 명 정도의 반일무장역량을 갖고 있는 바, “이 역량은 일본제국주의의 원수(死敌)일뿐만 아니라 중국 토지혁명의 한 갈래 유력한 농민군”으로 규정하였다. 만주성위는 위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만주에 있는 조선농민들은 토지가 있어야 한다! 중국의 군벌과 지주들이 조선농민들을 학대하고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박탈하는 것을 반대한다! …… 중국농민과 조선농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구호들을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과 “접촉하고 협상해야” 할 필요성도 제출하였다.²⁵⁾

같은 해 4월 15일에 중공 만주성위는 “만주 조선농민들에게 고하는 글”

23) 「我们在满洲的政纲」, 1927年12月1日, 『东北文件汇集』(甲1), 1988年版, pp. 174-175.

24) 「满洲农民运动决议案」, 1927年12月1日, 『东北文件汇集』(甲1), 1988年版, pp. 180-181.

25) 「东边道工作决议案」, 1928年 2月29日, 『东北文件汇集』(甲1), 1988年版, pp. 357-360.

과 “만주의 조선농민문제” 등 문건들을 발표하여 동북조선민족의 사회상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친애하는 조선농우(农友)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은 같고 우리들의 적은 같으며 우리들의 분투목적도 같은 바, 우리들의 분투의 보조와 행동도 마땅히 같아야 한다.”²⁶⁾ “조선농민들은 우리 반일의 우군(友军)이며 우리 만주 혁명적 농민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중국의 군벌, 지주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농민들을 유린하는 것을 더는 방관(旁观)할 수 없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스러운 이들 혁명군중들을 연합하여 망치와 낫이 교차된 붉은기 아래에서 함께 반일운동을 하고 토지혁명운동을 하며 정권을 탈취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²⁷⁾ 한마디로 조선민족이 동북혁명에 집적 참가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위는 “조선혁명운동으로 (동북)의 반제공작(反帝工作) 및 일반적인 혁명군중을 조직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책략의 총노선”(策略的总路线)의 하나로 결정하였다.²⁸⁾ 그해 2월에 이르러 중공 만주성위는 “조선의 혁명운동으로 반제운동을 제고한다. …… 우리는 피압박민족의 동정지위(同情地位)에서 반드시 조선혁명운동을 열렬하게 지원해야 하며 당연하게 조선의 독립운동을 확대지원하는 것은 바로 만주민중의 반제정서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3월 1일 “한국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군중시위활동을 일으키며 “한국혁명운동 지원”을 하나의 “중심구호”(中心口号)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²⁹⁾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동북의 조선민족은 이미 1920년 전후 시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의 앞장에 나서서 사회적으로 선봉적인 모범작용을 일으켰

26) 「中共满洲省临委告满洲朝鲜农民书」, 1928年4月15日, 『东北文件汇集』(甲2), 1988年, p. 10.

27) 「满洲的朝鲜农民问题」, 1928年4月15日, 『东北文件汇集』(甲2), 1988年版, p. 17.

28) 「中共满洲省委给中央的报告」, 1930年1月22日, 『东北文件汇集』(甲4), 1989年版, p. 124.

29) 「中共满洲省委通告第九号」, 1930年2月5日, 『东北文件汇集』(甲4), p. 147.

고 중공 동북당조직은 최초부터 조선민족의 항일혁명운동을 중시하고 지지하면서 동북의 반제반봉건 혁명운동의 동맹군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하겠다.

1920년대 말까지 중국 동북의 상황은 산해관 이남의 관내지역들과 달리 중공당 조직과 조공당 조직은 다만 조직성원들 간의 일부의 개별접촉이 있었을 뿐³⁰⁾, 그때까지는 직접적인 연합활동과 공동투쟁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조공당조직은 이미 “만주의 조선인들 중에 군중이 있었고 조직이 있었으며 혁명투쟁도 있었다.”³¹⁾ 당시 동북지구에서의 중공당 조직과 조공당 조직의 발전상황을 간단히 비교하면 대개 아래의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공당조직은 주로 도시들에서 공업노동자, 지식인과 청년학생들을 주요한 공작대상으로 하였고 광범위한 농촌농민들에 대한 공작은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³²⁾ 하지만 조공당조직은 조선이주 농민의 절대다수가 편벽하고 낙후한 농촌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작중심과 대상은 자연적으로 농촌과 농민들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1929년 7월에 이르러 동북의 중공당원은 근근이 200여명³³⁾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공당 각파의 당원은 이미 1,200여명에 달하였다.³⁴⁾ 상

30) 1929년 9월 15일 中共哈尔滨市委书记 张洛书와 조선공산당 火曜派滿洲总局宣传部主任 장시우(张时雨)가 흑룡강성 아성(阿城)에서 처음으로 조직회담을 가지고 조직 간의 상호관계와 조공당원들이 중공당조직에 가입하는 문제 등을 토론하였음. 『东北文件汇集』(乙2), pp. 65-72 참조.

31)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 1959年12月28~29日.

32) 「中共滿洲省委组织状况一览表」, 1928年11月9日, 『东北文件汇集』(甲2), p. 394.

33) 「中共滿洲省委廖如愿关于省委工作情况给中央的报告」, 1927年7月, 『东北文件汇集』(甲3), 1988年版, p. 233, p. 236.

34) 「中共滿洲省委廖如愿关于省委工作情况给中央的报告」, 1927年7月, 『东北文件汇集』(甲3), p. 233, p. 236.

대적으로 말하여 조공당조직은 보다 제한된 지역활동 범위였지만 사회적 균중기초가 비교적 좋았고 그 조직발전이 비교적 빨랐는바, 조선이민사회에서 비교적 계통적인 조직망과 균중단체들을 이미 건립하였다. 예를 들면 동만지역의 경우, 1927년 7월 조공당 각파가 영도하는 혁명균중단체는 이미 116개, 조직성원은 무려 9천 7백여 명에 달하였으며³⁵⁾, 1929년 9월 화요파(火曜派) 만주중공 조직에는 당원 300여명, 단원 380여명, 농민조합성원 4천여 명과 청년회원 2만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다.³⁶⁾

셋째, 중공 동북당조직의 성원들은 매우 적었지만 완전히 통일되어 엄밀하게 하나의 완전한 조직체계 내에 단결되어 있었고 조공당의 조직인원들은 비록 많았지만 화요파, 엠엘파(ML派), 서울상해파(京上派, 汉城·上海派) 등 몇 개의 파별로 분열되어 하나의 통일되고 엄밀한 조직체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다.

1930년 봄 이래 동북의 조공당 각파조직은 조공당 중앙기구가 이미 해체된 현실상황과 공산국제의 “일국일당”(一國一黨) 조직원칙에 따라 각기 주동적으로 조직을 해산하고 그 대다수 인원들이 개인 신분으로 중공당조직에 참가하여 중공만주성위 각급조직의 성원으로 되었다. 그해 7월 1일에 중공 만주성위와 공청단 만주성위는 연합으로 “공개신”(公開信)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운동은 바로 국제적인 운동으로서,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그 소재지의 혁명운동에 참가해야 한다. …… 중국공산당 만주성집행위원회는 국제당의 입장과 전체 혁명의 이익에서 무릇 만주에 있는 한국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파벌관념을 철저히 숙청하고 중국당에 가입하며 중국혁명에 참가할 것을 호소한다. …… 공산주의자는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국제주의자이어야 하는 바, 공산국제의 조직원칙상에서 중국

35) 「间岛琿春地方朝鮮人結社團體概況」, 樅村秀樹, 姜德相編, 『現代史資料』(29), p. 535.

36) 「中共滿洲省委轉錄哈爾濱市委的報告」, 1929年9月24日, 『東北文件匯集』(乙2), p. 68.

에 있는 한국공산주의자들은 마땅히 그 소재지의 공산당 — 중국공산당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당강(党纲)을 찬성하고 당의 책략과 결의들을 집행하며 당의 장정을 준수하고 당의 조직 내에서 능히 공작에 종사해야 하며 중국혁명에 참가하여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³⁷⁾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이 시기 중공 동북당조직은 심사를 거쳐 수많은 원 조공당원들을 중공당원으로 접수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에서 한국혁명운동을 하고”³⁸⁾ “만주에서 한국독립을 실행하는”³⁹⁾ 불가극복의 객관적 제한성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고 “국제혁명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운동 자체의 필연적인 발전요구이며 또한 중국혁명의 발전과 중공당의 정확한 방침정책이 추진하고 조성한 필연적 선택이기도 하였다. 당시 동북조선민족이 처한 객관(客观) 환경과 조건상에서 그들이 독립적으로 단일한 조선민족반일혁명운동을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기본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⁴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연적으로 중국의 동북혁명에 직접 참가함과 동시에 조선혁명도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두 개의 역사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한때 그들 스스로가 심지어 “재만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마땅히 조선운동에서 손을 떼야 한다”⁴¹⁾는 구호까지 제출하였고 또한 그들이 중공당에 가입한 후 반드시 “중공당화”(中共党化)⁴²⁾ 해야 하는 전제조건(前提条件) 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결코 그들

37) 「中共满洲省委, 团满洲省委致在满韩国共产主义者的公开信」, 1930年7月1日, 『东北文件汇集』(甲5), 1988年版, pp. 58-60.

38) 「中共满洲省委, 团满洲省委致在满韩国共产主义者的公开信」, 1930年7月1日, 『东北文件汇集』(甲5), 1988年版, p. 58.

39) 「中共满洲省委关于‘八一’反战运动节工作计划」, 1933年, 『东北文件汇集』(甲17), 1989年版, pp. 18-19.

40) 参照金成镐, 『1930年代民生团事件研究』, (韩国)白山资料院出版1999年版, pp. 423-436.

41) 伪满洲国军政部顾问部, 『满洲共产匪の研究』, 第一辑, 附录, p. 4.

이 중국혁명 “투쟁으로 조선혁명을 지원하는”⁴³⁾ 기본방향과 민족혁명의 근본임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중조 두 나라 인민의 독립해방을 쟁취한다는 “2중혁명사명”(双重革命使命)을 시종일관하게 짊어지고 장기간의 실천활동 중에서 중국혁명의 승리로 조선혁명을 촉진한다는 전략방침과 최종목적을 견정불이하게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동북의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은 중국혁명에 직접 참가하는 동시에 조선혁명을 준비하거나 직접 촉진하는 “2중혁명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당시 중공 동북당조직과 군대의 주요한 영도자였던 주보중(周保中)은 1950년대 말에 회고하기를, 당시 중공 만주성위는 “이미 해산된 후의 조선공산당원들을 중국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접수하였는데, 그때 그들의 당원과 간부들의 수자는 2천명 좌우로서 원래 동북에 있던 중공당원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⁴⁴⁾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중국당 영도 하에서 중국당의 노선을 집행하면서 중국해방전쟁의 임무를 짊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또 중국항일전쟁 중에서 동맹의 방식으로 중국혁명에 참가하여 자기를 단련하고 역량을 축적하며 자기의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허락하고 찬성하는 것이었고 국제주의정신에 부합되며 역사발전의 실제적 상황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⁴⁵⁾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실사구시적인 역사 설명이라고 하겠다.

중공 동북당조직은 “국제적으로 소련, 조선, 몽고의 각 혁명민족들과 연합하고 중국의 로동자, 농민들을 주체로 하여 봉계군벌(奉系军阀)을 뒤

42) 「中共东满特委书记冯康的报告(之八)」, 1935年12月20日, 『东北文件汇集』(甲30), p. 378.

43) 伪满洲国军政部顾问部, 『满洲共产匪の研究』, 第一辑, 附录, p. 4.

44)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 1959年12月28~29日. p. 11.

45)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 1959年12月28~29日. p. 11.

였고 토호열신세력(紳豪勢力)들을 제거하며”⁴⁶⁾ “중국농민들 속에서의 공작을 절실하게 진행하여 중국농민들로 하여금 농민운동중의 주력이 되게 한다”⁴⁷⁾고 시종 주장하여 왔지만, 중공당내의 “좌”경 노선의 영향, 중공 동북당조직 역량의 미약성, 그리고 동북농촌의 구체적인 상황 등으로 말미암아 당시까지 중공당이 동북농촌에서의 선전과 조직공작은 충분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동만의 경우, 1930년 여름에 원 조공당 각파의 조직성원들이 “거의 전부”가 중공 동만특별위원회(东满特委)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다.⁴⁸⁾ 1930년 3월말 중공 동북당조직은 근근이 30개 지부, 206명 당원뿐이었지만⁴⁹⁾, 원 조공당원들이 대량으로 중공당조직에 가입한 후인 그해 10월에 이르러 조선민족 당원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⁵⁰⁾ 1931년 3월 말, 전 동북의 중공당원은 모두 1,19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동만특위의 636명(동북 중공당원수의 53.4%) 당원 중 조선민족이 96.5%, 남만특위의 당원 200명(동북 중공당원수의 16.8%) 중 조선민족이 98.5%를 차지하였다.⁵¹⁾ 이 시기에 동북 공산주의청년단조직에도 “한국동지들이 전체 인원수의 95%를 차지하는데, 단지 농촌일 경우 98%를 차지하는”⁵²⁾ 국면이 나타났다. 1931년 1월 3일에 공청단 만주성위가 제출한 “조직보고”에 따르면, 동북 전 지역의 공청단원은 약 1천 5백 명, 그중 “동만, 남만의 단원

46) 「中共滿洲省臨委給中央函」, 1928年3月21日, 『東北文件匯集』(甲1), 1988年版, p. 393.

47) 「中共滿洲省委通告第二十號」, 1930年12月9日, 『東北文件匯集』(甲6), 1988年版, p. 253.

48) 「中共東滿黨團特委工作報告」, 1933年10月25日, 『東北文件匯集』(甲30), p. 17.

49) 「中共滿洲省組織狀況表」, 1930年3月30日, 『東北文件匯集』(甲4), p. 377.

50) 「江宇給中央的報告」, 1931年5月31日, 『東北文件匯集』(甲31), 1990年版, p. 68.

51) 「中共滿洲省委給中央的報告」, 1931年4月24日, 『東北文件匯集』(甲8), 1988年版, pp. 16-19.

52) 「團滿洲省委工作報告」, 1931年3月31日, 『東北文件匯集』(乙1), 1991年版, p. 99.

중에서 90% 이상이 한국 빈궁한 농민청년들이며 …… 중국인 단원들은 근근이 동만에 12명, 남만에 2명, 북만의 하얼빈시에 25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각 현의 단원들은 거의 전부가 한국청년들이다. …… 총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만주의 공청단원 중에서 중국인은 15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한다”⁵³⁾는 것이었다.

이에 근거하면, 당시 원 조공당원들과 단원들이 대량 가입함으로 하여 동북 중공 당조직과 공청단조직이 급속적으로 발전, 장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동북의 전체 인구가 약 3천만 명이고 동북의 조선민족이 근근이 1백여만 명 정도인데, 중공 동북당조직과 공청단조직 내에 기이(奇異)하게 나타난 상술한 민족비례상황은 바로 동북조선민족의 특수한 역사배경과 사회기반을 반영하며 조선민족의 보다 높은 사회혁명열정과 보다 충분한 사상, 조직적 준비상황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장은 회고하기를, “투쟁 중에서 대량의 조선동지들을 접수하였다. 1930년 당시 현위서기(县委书记)는 거의 모두 조선동지들이었고 구위서기(区委书记)들도 마찬가지였다. …… 연변 4개현과 벌리, 탕원, 요하, 보청, 호림, 의란 등 지역의 현위서기들도 모두 조선동지들이었고 현위위원 대부분도 조선동지들이었다. 이들 간부들은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었다”⁵⁴⁾, 1930년 이래 중공 동북당조직이 “농촌에서의 공작은 매우 큰 발전이 있었는데, 주요하게는 조선민족에 대하여, 조선민족을 기초로 하여 중국농민들 속에까지 확대하여 전개되었다.”⁵⁵⁾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여, 이미 조직동원된 조선이주농민들을 통하여 동북 각 민족 농민군중들을 동원하였는바, 이는 “9·18사변” 후의 본격적인 적후 항일유격전쟁을 위하여 광범위한 사회기반

53) 「团满洲省委十二月份组织报告」, 1931年1月3日, 『东北文件汇集』(甲7), 1988年版, pp. 239-240.

54)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 1959年12月28~29日, pp. 11-12.

55) 廖如愿, 「1930年前后满洲省委的情况」, 『中国共产党东北地方组织的活动概述』, 黑龙江人民出版社1994年版, p. 211.

과 기본역량을 준비한 것으로 된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조선민족의 역사특점과 항일혁명투쟁에서의 “2중사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으며 시종일관하게 조선의 반일민족독립해방투쟁을 지원하는 것을 당의 한개 중요한 공작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중공 동북당조직의 역대의 결의, 지시와 고시(告示) 등 문건들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1930년 8월 동북의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이 대량적으로 중공당조직에 가입할 때, 만주성위는 “정치임무”의 하나로 조선민족혁명문제를 논하면서 “중국혁명과 한국혁명은 갈라놓을 수 없다. 만주혁명의 폭발은 우선 한국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더욱 빠른 멸망을 촉진할 것이다. 만주는 한국과 가깝게 잇대어 있어 지리상에서 완전히 하나의 판도(版圖)이다. 만주에 있는 한국 140만 명의 이주민들은 이미 중국혁명운동에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한국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 만주당이 한국식민지 혁명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련을 옹호하고 중국혁명의 승리를 보장(保障)하는 것인 바, 이는 지금 우리 만주당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⁵⁶⁾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9월에 만주성위는 또 지적하기를, “당은 반드시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 하에서 한국, 몽고의 혁명을 극력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만주에 있는 한국농민들의 폭동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만주혁명세력중의 한 갈래 유력한 군대로 되고 있다. 당은 마땅히 견결하게 그들의 폭동을 영도하여 그 영향이 한국내부에까지 발전, 심입되게 하며 한국혁명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⁵⁷⁾고 하였다. 10월에 이르러 만주성위는 동만특위에 편지를 보내어, “조선국내의 공작을 개척하고 건립하기 위하여 조선국내공작위원회를

56) 「中共滿洲省委給中央的報告」, 1930年8月8日, 『東北文件匯集』(甲5), 1988年版, p. 97.

57) 「中共滿洲省委關於滿洲政治形勢與黨的工作任務的報告」, 1930年9月, 『東北文件匯集』(甲5), 1988年版, p. 280.

성립하고 성위에서 직접 관할(성위원회내에서 분공)하며 잠시간 내에는 동만특위에 위탁하여 지휘, 집행하게 하여 조선국내의 일체 공작을 건립, 포치하게 한다”⁵⁸⁾고 지시하였다. 이 시기에 만주성위는 “한국혁명지원”을 하나의 중대한 “국제임무”⁵⁹⁾로 확정하고 그 실행을 위해 각 방면에서 적극 노력하였다.

1931년 2월 중공 동만특위는 만주성위의 지시정신에 따라 “조선국 공작에 관한 결의”를 통과하고 “중국당은 마땅히 조선혁명을 지원하는 임무를 짊어져야 한다. 중국당은 반드시 만주 조선군중의 격렬한 투쟁 중에서 적극적이고 용감하며 파견관념이 절대 없는 일부의 동지들을 선택하여 조선국내 공작에 파견하며 그들이 군중투쟁을 영도하고 조선당을 건립하게 하며 또한 그들을 소개하여 국제(당)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있게 한다. 이는 조선국내 공작에 대한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지원이다. 만주와 조선의 관계는 더욱 비상하게 직접적이다. 동만의 조선국 민중은 약 100만 명인데 급격한 투쟁은 더욱 반드시 실제적으로 조선혁명을 지원하는 중심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동만의 당은 반드시 이 구호를 일반적인 군중들에게까지 심입시켜야 한다.”⁶⁰⁾ “이와 동시에 중국당이 만주에서의 혁명도 반드시 조선국내 공작의 배합(配合)을 받아야 하는 바, 조선혁명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만주의 공작을 전개하는 것과 같다.”⁶¹⁾고 지시하였다.

중공 동만특위에서 통과한 “조선국 공작에 관한 결의”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중공 동만특위의 서기를 책임자로 한 “조선국내공작위원회”(朝

58) 「中共东满特委给省委的信」, 1931年2月23日, 『东北文件汇集』(乙2), p. 259.

59) 「满洲目前的政治形势与党的任务及工作路线」, 1930年11月16日, 『东北文件汇集』(甲6), 1988年版, p. 137.

60) 「中共满洲省委朝鲜工作委员会对于朝鲜国工作的决议」, 1931年2月22日, 『东北文件汇集』(乙2), p. 254.

61) 「中共东满特委给省委的信」, 1931年2月23日, 『东北文件汇集』(乙2), p. 261.

鲜国内工作委员会)를 조직한다; 둘째, 일부분의 동지들을 조선국내에 파견하여 함흥, 평양과 서울 등 지역들에서 군중공작을 전개하고 점차적으로 당의 조직을 건립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조선국내에로 발전하며” 훈춘, 개산톤 등 동만 중조변경지역의 당조직들은 조선국내에서 공작을 전개한다; 넷째, 동만특위와 만주성위의 “조선국내 공작위원회” 명의로 조선민중들에게 “조선혁명지원”의 “선언”(宣言)을 발표한다; 다섯째, 조선국내 혁명조직의 대표 1명이 중국동만에 와서 “연락원”을 맡을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조선국내공작위원회의 매달 활동자금을 200원으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⁶²⁾ 실제상에서 중공 연결현 개산톤 구위원회 등 변경지역의 일부 당조직들은 일찍부터 두만강 남안 조선국내의 공작에 착수하였는바, 이미 수십 명의 군중들로 지하혁명조직들을 건립하기도 하였다.⁶³⁾ 동만특위에서는 조선국내공작위원회를 조직한 후 선후로 약 20명의 조선민족당원들을 비밀리에 조선으로 파견하여 지하조직공작을 시작하게 하였다.⁶⁴⁾

동년 5월 중공만주성위 상무위원회의 “만주의 한국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주에 있는 한국민족은 비록 조선을 떠났지만 의연히 일본제국주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재만 한국민족의 제일 주요한 적이다. …… 재만 한국 노동군중들은 마땅히 중국의 노동군중들과 연합하여 공동한 적들인 일본제국주의와 중국국민당, 군벌, 토호열신지주와 자산계급을 함께 반대해야 한다. …… 한국혁명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 당 특별히는 만주 당의 가장 중심적인 실제 임무의 하나이다. …… 특히는 일본제국주의와 중국 통치계급들이 중한민족(中韩民族)(관계)을 도발하는 반동적 선전을 적발, 파탄시키고 중한 노동민중, 중한혁명연합의 의의(意义)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한

62) 「中共东满特委给省委的信」, 1931年2月23日, 『东北文件汇集』(乙2), pp. 261-262.

63) 「中共开山屯区委给县委的信」, 1931年1月14日, 『东满地区革命历史文献汇编』(아래는 『东满文献汇编』으로 간략함)(上册), 2000年版, p. 588.

64) 『廖如愿谈朝共党员加入中共问题』, 1961年12月20日.

다. …… 재만 한국민족은 오직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투쟁해야 만이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 한국동지들을 조선국내로 파견하여 공작하게 하는 문제는 당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과거 동만이 일찍 이 공작을 하였었는데 반드시 계속 진행해야 한다. 남만도 마땅히 이 공작을 진행할 준비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조직되어있는 만주성위기관의 “소수민족위원회”(少数民族委员会)와 “한문번역과”(韩文翻译科)의 기초위에서 조선문 신문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만, 남만과 북만의 각 특위조직에서 각기 “소수민족위원회”거나 “한국민족위원회”(韩民族委员会)를 조직하며 산하의 각급에서는 “중한반제동맹”(中韩反帝同盟)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⁶⁵⁾ 6월에 만주성위의 간행물인 『진공』(进攻) 제1기는 문장을 발표하여 “재만 한국노농군중의 유일한 출로는 바로 중국의 노동자, 농민 로고대중들과 친밀하고도 공고하게 연합하여 일본제국주의, 국민당군벌, 지주, 토호열신과 자산계급을 타도하고 토지혁명을 실행하며 쏘베트정권을 건립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비로소 유일한 출로인 바, 오직 이렇게 해야 만이 비로소 진정한 민족자결을 실현하고 일체의 민족압박을 벗어나며 자유와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⁶⁶⁾

9월 12일에 이르러 중공만주성위가 채택한 “조선국내공작에 관한 결의”는, 중공당에서 조선에 파견한 지하공작원들이 그곳에서 새로 발전시킨 조직성원들은 중공당원으로 될 수 없고 장차 조직하게 될 “한국당의 기초”(韩国党的基础)로 될 것이며, 앞으로 공산국제의 비준을 거쳐 조선공산당을 정식으로 건립하게 될 때에는 “조선에서 새로 발전시킨 모든 동지들과 과거 파견했던 공작원들도 모두 조선의 당으로 옮기고 중국당과의 조직관계를 탈리하게 된다”⁶⁷⁾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족혁명의 독립성을

65) 「中共满洲省委关于满洲韩国民族问题决议案」, 1931年5月26日, 『东北文件汇集』(甲8), 1988年版, pp. 134-141.

66) 「白色恐怖의先鋒韩民族主义者」, 1931年6月27日, 『东北文件汇集』(甲8), p. 396.

충분히 인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1931년 9월 12일 바로 “9·18사변” 폭발 6일전까지도 중공 동북당조직은 동북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의 “2중혁명사명”을 이해하고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혁명의 높은 차원에서 조선의 반일민족혁명투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래의 발전전도까지 설계하면서 적극적으로면서도 직접적인 조직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겠다.

3. “9·18사변” 후 중공 동북당조직의 조선민족항일혁명투쟁 인식과 방침정책

1931년 일제는 “9·18사변”을 일으키고 무장침략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강점하였다. 1932년 동북 각 지역 의용군들의 거세찬 항일무장투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중국공산당이 직접 영도하는 농촌과 산구에서의 항일 유격투쟁이 점차적으로 동북항일전쟁의 주요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었다.

위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당시 동북 중공당조직에서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이 이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중공당의 항일전쟁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앞장에서 각종 형식의 유격대를 조직하고 영용하게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바, 동북 여러 민족들 속에서 매우 돌출한 선봉작용을 일으켰다.⁶⁷⁾ 그 주요한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조선민족은 일찍부터 망국노의 비참한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야심과 수단들을 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일제에 대해 보다 깊은

67) 「中共滿洲省委對東滿特委關於朝鮮國內工作的決議」, 1931年9月12日, 『東北文件匯集』(乙2), p. 291.

68) 김성호, 「朝鮮民族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抗日鬥爭中的地位 and 貢獻」, 『世界歷史』, 2012年第三期, pp. 13-20.

민족적 원함과 역사적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사상과 조직 상에서 이미 비교적 견실한 역사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1894년 10월 갑오농민군의 제2차 봉기이래의 반일무장투쟁, 의병투쟁, 반일독립군 그리고 조선공산당 활동 등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해온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그들은 장기간 여러 가지 형식의 반일투쟁을 이미 경과하였고 피와 눈물의 경험교훈으로부터 오직 총대를 들어야 만이 비로소 반일민족해방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오직 중공당의 통일된 영도 하에서 동북 여러 민족 인민들과 연합하여 함께 싸워야 만이 강대하고 흉악한 일제를 타도할 수 있다는 도리를 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넷째, 조선민족의 반일의병과 독립군들의 항일무장투쟁의 귀중한 경험교훈들이 있었고 일정한 정도의 물질기초도 가지고 있었다. 예하면 독립군 출신자들과 일부의 무기장비들이 남아 있었다. 다섯째, 조선민족 항일유격대들의 초기의 활동구역들은 대부분 조선독립군들이 활동하던 지역들로서 비교적 견실한 민중기반과 지형우세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중공당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유격전쟁의 최초기에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매우 중대한 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1932년 9월초에 중공만주성위는 “8·29 한국망국” 22주년을 기념하여 특히 “결의”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만주는 이미 두 번째 한국으로 되었는데, 만주의 3천만 압박받는 중국민족과 만주에 있는 한국의 170만 피압박민족은 그 어떤 구별도 없다. 중한 두 나라의 노동자, 농민 노고군중의 공동한 적은 바로 일본제국주의와 중한 지주, 자산계급들이다. 중한 노고민중의 이익은 일치하고 중한 노고민중들의 혁명행동은 갈라놓을 수 없다. 때문에 중한민족은 공동으로 일어나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하며 반드시 밀접한 연합전선을 결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함과 동시에 만주성위는 “각 지방의 반일반제동맹들을 발동하고 중한 노고대중들을 동원하여 ‘8·29 한국망국’을 기념하며 한국혁명을 지원”할 것과 “한국혁명운동을 돕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

하여 동만과 남만의 당은 마땅히 유능한 당원과 단원 및 충실하고 적극적인 인 빈농, 고농들을 선택, 파견하여 한국으로 돌아가 군중의 공작을 진행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⁶⁹⁾

1933년 1월, 만주성위는 동만특위에 지시하기를, “한국을 도와 당의 조직을 발전시키고 군중공작을 건립해야 하는 바, 동만당은 계속 반드시 가능한 정도까지 일부분 간부들을 파견(주의할 것은, 파쟁을 계속하는 자는 절대 파견할 수 없음)하여 이 임무를 집행해야 한다. 동만당은 한국의 공작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동만당의 중심임무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 공작이 동만공작과의 발전과 배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⁷⁰⁾이라고 하였다. 만주성위는 동북의 항일혁명과 조선혁명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면서 “중국과 조선의 군중들에게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의 관계를 해석할 것”을 지시하고 “만주의 한국군중들이 중국혁명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을 보호함과 동시에 역시 조선의 국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⁷¹⁾이라고 강조하였다. 동년 6월에 중공 동만특위는 “민중들에게 알리는 글”(告民众书)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중한 민중들이 반드시 연합하여 공동한 적인 일본강도를 반대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 중국공산당은, 만주에 있는 한국 소수민족은 중국민족과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소수민족은 완전한 자결권이 있다고 견결히 주장한다. …… 중국공산당은 만주에 있는 한국민중들에게 호소하는 바, 당신들은 마땅히 견결하게 중국민중들과 연합하여 중국혁명운동에 참가해야 한다. 중국혁명의 매 하나의 승리는 모두 조선혁명을 추진하는 역량이다. 중국공산당은 당신들을 영도하여 당신들의 조선국토를 회복하

69) 「中共满洲省委关于‘八·二九’韩国亡国纪念决议」, 1932年9月4日, 『东北文件汇集』(甲11), 1988年版, pp. 71-74.

70) 「中共满洲省委关于当前的任务给东满特委的指示信」, 1933年1月1日, 『东北文件汇集』(甲12), 1988年版, p. 28.

71) 「中共满洲省委关于‘八一’反战运动节工作计划」, 1933年, 『东北文件汇集』(甲17), 1989年版, pp. 18-19.

기 위한 투쟁을 고무격려하고 도와줄 것이다. …… 중국민족독립과 영토 완전(領土完整) 만세! 조선민족의 국토회복을 위한 혁명운동 만세! 중한민중 연합전선 만세!”⁷²⁾라고 제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이르러 중공만주성위와 공청단 만주성위는 연합으로 “한국민중들에게 알리는 글”(告韩国民众书)을 발표하여, “일본강도는 한국을 멸망시킨 방법으로 만주를 강점하고 동북 3천만 민중들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하고 일본강도의 노예로 되게 하였다. 동북 3천만 민중들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망국의 고통을 깊이 느끼고 있다. 당신들은 동북 3천만 민중들과 함께 같은 노예적 지위에 처해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동북 3천만 민중과 당신들의 공동한 적이다. 당신들은 마땅히 동북 3천만 민중들과 친밀하게 연합하여 공동한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 만이 비로소 민족의 해방을 얻을 수 있다. 만주에서 그리고 동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민중의 운명은 중국민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 중국민중이 민족의 해방을 획득하면 한국민중도 마찬가지로 능히 해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중국민중이 민족해방을 얻지 못하면 한국민중은 절대 단독으로 먼저 해방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중한민중의 민족적인 공동한 적은 일본제국주의인 바, 일본제국주의를 만주에서 쫓아내지 않고서는 전체 만주의 중한민중은 민족적인 해방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한민중은 마땅히 친밀한 형제동맹을 결성하고 공동한 적인 일본강도들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⁷³⁾고 지적하면서 동북의 조선민족들이 중국의 여러 민족 민중들과 항일연합전선을 결성하고 중조 두나라의 공동한 민족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영도아래 동북의 조선민족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72) 「中共东满特委告民众书」, 1933年6月10日, 『东北文件汇集』(甲29), 1989年版, pp. 290-293.

73) 「中共满洲省委, 团省委关于反对日本强盗奸细民生团及派争告韩国民众书」, 1933年12月7日, 『东北文件汇集』(甲16), 1989年版, pp. 133-134.

항일혁명투쟁에 나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극히 중대한 작용을 일으켰다. 1933년 조선민족당원들이 중공 동북당조직의 주요한 활동지역들에서의 조직인원비례는 다음과 같다. 북만의 아성특별지부(阿城特別支部)에서 100%, 주하현위(珠河县委)에서 90%, 빈현(宾县)특별지부, 탕원중심현위(汤原中心县委)와 요하(饶河)중심현위에서 모두 99%, 수녕(绥宁)중심현위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남만혁명의 활동중심지역인 반석중심현위에서 99% 차지하였다.⁷⁴⁾ 동만의 경우, 중공 “당조직이 제일 강대하여 전체 만주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바, …… 당원이 1천 2백 명, 단원이 1천 1백 명 있다. 그리고 광범위한 군중조직이 있다. 하지만 당의 조직이나 군중의 조직이나 95%는 한국동지들이다.”⁷⁵⁾ 이 시기 전체 동북의 중공당원은 모두 2천 1백여 명이었는데, 그중 조선민족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다.⁷⁶⁾

1934년 5월, 동만특위의 중공당원과 공청단원은 모두 2,300여명, 그중에서 한족(汉族), 만족(满族)등 기타 민족성원들은 겨우 80여명으로 근근이 3.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전부는 조선민족이었다.⁷⁷⁾ 1935년 2월에 이르러 동만에 있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각 부대들에서 조선민족은 약 90%를 차지하였다.⁷⁸⁾ 그해 12월 중공 동만특위서기 위증민(魏拯民)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만 중공당원(동북인민혁명군 제외)의 95% 이상과 항

74) 「xx同志关于满洲民族革命战争, 工农, 士兵斗争形势以及我们的工作, 组织状况的报告」, 1933年1月17日, 『东北文件汇集』(甲12), 1988年版, p. 295.

75) 「满洲事变与满洲的中国共产党」, 1933年10月, 『东北文件汇集』(甲17), 1989年版, p. 275.

76) 「xx同志关于满洲民族革命战争, 工农, 士兵斗争形势以及我们的工作, 组织状况的报告」, 1933年1月17日, 『东北文件汇集』(甲12), 1988年版, pp. 295-296.

77) 华西里, 「满洲工人阶级的情形与革命职工运动的任务」, 1934年5月, 『东北文件汇集』(甲20), 1990年版, p. 177.

78) 「中共东满党团特委第一次联席扩大会议的报告」, 1935年2月, 『东北文件汇集』(甲30), p. 215.

일유격구 인민의 95% 이상이 모두 조선민족이었다.⁷⁹⁾

위에서 이미 언급하다시피 동만에서의 항일혁명운동이 조선민족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 일부에서는 중공 동만특위조직 및 그들의 혁명활동을 심지어 “고려공산당”⁸⁰⁾, “고려인 반란”⁸¹⁾이라고 까지 말하였으며 한때 항일유격구내에 건립된 소비에트정권을 “한인쏘베트”, “한국쏘베트”⁸²⁾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1932년 초 동만 각 현들에서 분분히 항일유격대를 조직하던 한 시기에는 “중한유격대”⁸³⁾, “적색중한유격대”(赤色中韩游击队), “중한적색유격대”⁸⁴⁾와 “중한공농유격대”⁸⁵⁾ 등 조직이름을 정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 역시 조선민족이 중공당의 영도 하에서 동북 특히는 동만에서의 특수한 지위, 거대한 작용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당시 극히 간고하고 긴장하며 참여한 항일유격전쟁환경에서 중공당은 한때 조선민족 항일혁명투쟁문제에 관하여 극히 엄중한 “좌”경착오도 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1932년 10월부터 1936년 2월까지 3년 4개월간 중공 동만특위가 동만 당, 단조직과 항일유격구내부에서 조선민족동지들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한 반“민생단”투쟁⁸⁶⁾

79) 「中共东满特委书记冯康的报告(之八)」, 1935年12月20日, 『东北文件汇集』(甲30), pp. 368, 375.

80) 「团满洲省委特派员(钟)巡视东满工作的报告」, 1934年, 『东满文献汇编』(下册), p. 1188.

81) 「中共汪清县委启事」, 1933年8月10日, 『东北文件汇集』(甲35), 1989年版, p. 359.

82) 「中国共产党代表在大小汪清群众会上的报告」, 1933年8月14日, 『东满文件汇编』(上册), p. 54.

83) 「延吉, 汪清, 琿春, 和龙中韩游击队与汪清反日别动队告反日士兵书」, 1933年3月, 『东北文件汇集』(甲44), 1990年版, pp. 1-5.

84) 「琿春县中韩工农游击第二大队告反日士兵书」, 1933年5月3日, 『东北文件汇集』(甲44), pp. 7-10.

85) 「别动队和汪清, 延吉, 琿春, 和龙中韩工农游击队为走狗同山好进攻别动队事件告中韩民众书」, 1933年5月31日, 『东北文件汇集』(甲44), pp. 11-12.

은, 동북조선민족 항일투쟁역사의 특수성을 홀시, 부인, 왜곡하고 극“좌”적으로 조선민족주의자, 조선공산당 “파쟁분자”와 조선민족의 친일파조직인 “민생단”이 3자를 거의 동일시하였으며 조선민족동지 수 천명을 의심, 배척, 심사하고 체포, 투쟁하였으며 그중 5백여 명의 혁명간부와 군중골간들을 잘못 살해한 것이다(원 길림성 제1임 성장인 후보장은 회고하기를 2천여 명의 조선민족 간부와 군중들을 잘못 살해하였다고 하였음).⁸⁷⁾ “좌”경노선의 지도아래 극히 착오적으로 진행된 반“민생단”투쟁은 동만조선민족 항일혁명열정을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의 항일연합전선을 엄중하게 파괴하였으며 동아항일혁명투쟁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간략하여 말하면, 이 중대한 “민생단사건”이 발생한 주요한 객관적 조건은, 첫째, 지리환경과 지역인구의 민족구성 등 동만사회역사의 특수성; 둘째,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특수성과 동만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함과 잔혹성, 더욱 복잡하고도 첨예한 특수성; 셋째, 일제의 음험하고도 교활한 민족이간정책과 조선민족 친일파들의 악랄한 작용 등이라고 간단히 개괄할 수 있다. 이 객관적 조건하에서의 주요한 주관적 원인은, 첫째, 중공당 당시의 “좌”경노선 영향, 동만특위 일부 주요간부들의 조선민족에 대한 엄중한 인식착오와 보다 낮은 정책수준; 둘째, 항일혁명대오 내부의 중조 민족관계상에서의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되는 언어소통,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 상호간의 불화, 오해, 편견과 모순문제; 셋째, 동만조선민족의 객관적 제한성과 내재적인 취약성 등 특점문제들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⁸⁸⁾

86) 김성호, 『1930年代延边民生团事件研究』, (韩国)白山资料院出版, 1999年; 『东满抗日革命斗争特殊性研究 — 以1930年代“民生团事件”为中心』,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年 출판 등 참조.

87) 『访问周保中同志记录』, 1960年5月30日. 李长浦, 陈铁健访问, 陈铁健整理.

88) 김성호, 『东满抗日革命斗争特殊性研究』,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6年版, pp. 257-359.

1935년 2월 중공만주성위의 길동순시원 오평(吳平, 즉 양송)은 동만특위에 보내는 편지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기를, “동삼성(東三省) 간도에 있는 한국인, 운남성, 귀주성에 있는 묘인(苗人), 요인(瑤人) 그리고 동삼성의 어떤 지역 내의 만인(滿人, 즉 만족)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민족자치구를 성립하고 장래의 대중화소베트공화국(大中華蘇維埃共和國)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구역들에서 이러한 민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기의 언어, 문자, 경제, 풍속, 습관 등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화국을 건립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가 간도에서 일만통치(日滿統治)를 벗어난 민족자치구를 성립하고 장래의 동삼성 인민혁명정부에 귀속되며 조선에 귀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도가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마땅히 ‘한국민족독립’을 하나의 중심구호로 해야 한다. …… 중국 영도동지들은 한국군중들의 상황을 철저히 알기 위하여, 그리고 영도공작에서의 편리성을 위하여 마땅히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⁸⁹⁾고 강조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공 동만특위서기 위증민도 지적하기를, “매개 중국동지들은 고려어(高麗語)를 배우고 고려민족의 언어, 풍속, 인정(人情), 습관 등 민족특성을 연구하며” “정확한 고려민족의 정치구호를 제출해야 한다”⁹⁰⁾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공당의 유관 영도자들이 반“민생단”투쟁의 경험교훈들을 심각하게 총화, 접수하고 제출한 실사구시적인 인식과 정확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같은 해 3월, 동만 당, 단특위는 “반‘민생단’투쟁 결의”에서 “일부분의 무장을 파견하여 국경을 넘어 유격활동을 시작하게 하며 진정으로 고려인들의 독립을 도와주어야 한다”⁹¹⁾고 결정하였다. 같은 달에 소집된 제2군

89) 「中共滿洲省委吉東巡視員(吳)致東滿特委的信」, 1935年2月10日, 『東北文件匯集』(甲21), 1988年版, pp. 55-56.

90) 「中共東滿特委書記馮康的報告(之六)」, 1935年12月20日, 『東北文件匯集』(甲30), p. 340.

독립사단 “정위연석회의”(政委联席会议)에서도 조선국내에로 진군하여 “중한유격구를 조성”(造成中韩游击区)할 것을 결정하였다.⁹¹⁾ 조선과 중국동북이 모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현실상황에서 중조 두 나라 인민의 항일연합무장대오인 동만의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이 중조 두 나라를 포함한 변경일대에서 “중한유격구”를 건립하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이 바로 반“민생단”투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생된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된다.

1936년 초에 이르러 중공 동북당조직은 공산국제 제7차대표대회에서 세계 반파쇼인민전선을 건립하자는 정신과 공산국제주재 중공대표단의 새로운 지시에 근거하여 동북에서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진일보로 공고히 하고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동북에서의 모든 항일무장대오를 통합하여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북조선민족의 항일혁명투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침정책을 제출하였다. “동북의 한국민족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 중한민족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항일하며 중한민족의 독립을 쟁취한다. 동만 간도에 대하여 우리 당중앙은 ‘중한민족이 연합하여 일만통치를 뒤엎고 간도 한인민족자치구(韩人民族自治区)를 건립할 것’을 주장한다. B, 지금 동만의 인민혁명군을 중한항일연군(中韩抗日联军)으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동만에서 단독으로 한국민족혁명군(韩国民族革命军)을 성립하여 한국내부에 가서 유격투쟁하며 한국민족독립을 쟁취한다. C, 한인 중에서 일본의 망국노예가 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여 한인내부의 반일연합전선을 건립한다. 충실한 한국 노동자, 농민들을 흡수하여 중국공산당에 가입시키는 외에도 한국민족혁명당을 조직하는 바, 그 목적은

91) 「中共东满党团特委关于反‘民生团’斗争的决议」, 1935年3月1日, 『东北文件汇集』(甲30), p. 229.

92) 「东北人民革命军政委联席会议」, 1935年3月21日, 『东北文件汇集』(甲44), p. 432.

바로 한국에서의 일본통치를 뒤엎고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며 조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⁹³⁾

이것은 중공 동북당조직이 조선민족을 영도하여 항일혁명투쟁을 진행하는 장기간의 실천과정에서 동북조선민족 및 그들의 항일혁명투쟁의 특수성을 보다 진일보로 인식하고 또한 반“민생단”투쟁과 같은 경험교훈들을 심각하게 접수한 후 더욱 충분하고도 긍정적으로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의 “2중혁명사명”의 특수성을 이해한 기초상에서 새롭게 취한 실사구시적인 정확한 방침정책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전에는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중공당화”(中共党化)⁹⁴⁾만을 요구하면서 동북조선민족을 중국경내 여러 민족들의 항일통일전선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거나 단순하게 국제주의적 의무와 전략전술의 차원에서 조선혁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로 세계 반파쇼인민전선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동북조선민족을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을 중공당이 영도하는 동북항일혁명의 한 갈래 주력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선혁명의 한개 주체(主体)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의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은 더욱 높은 항일혁명열정과 보다 많은 희생을 지불한 후에 마침내 자기의 마땅한 사회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조선독립을 목표로 한 활동”⁹⁵⁾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일성을 위수로 한 동북의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은 중조 두 나라 인민의 연합항일투쟁의 수요와 조선혁명의 현실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책략과 형식상에서 독립적인 민족부대와 민족정당을 따로 조직하지

93) 「中共吉东省委致饶河中心县委及四军四团的信」, 1936年3月12日, 『东北文件汇集』(甲28), 1989年版, p. 10.

94) 「中共东满特委书记冯康的报告(之八)」, 1933年12月20日, 『东北文件汇集』(甲30), p. 378.

95) 伪满洲国军政部顾问部, 『满洲共产匪の研究』, 第一辑, p. 126.

는 않았다. 비록 중공당에서 동만조선민족이 단독으로 “민족혁명당”과 “민족혁명군”을 조직할 것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지만, 그들은 중국동북이 항일무장투쟁의 주요한 전장터이고 전체 동북지역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汉族), 만족 등 기타 민족들과의 긴밀한 단결이 절실히 필요하며 일제의 잔폭하고도 고지능(高智能)적인 식민통치로 하여 조선국내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의 항일연합전선을 반드시 진일보로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문제를 고려하였는바, 형식상에서 원래의 통일된 민족연합부대로 계속 활동하며 한족(汉族)지역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부르고 동북의 조선민족집거지역과 조선국내로 진군하여 활동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다.⁹⁶⁾ 당시의 실제적 환경과 조건하에서 이는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 한 원인으로 하여, 1936년 3월부터 중공당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의 통일된 조직체계내의 조선민족부대들과 관병들은 국내외의 조선민족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조직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비록 형식상에서 민족독립적인 조직체계를 정식으로 건립하지 않았고 여전히 중공당 통일영도하의 동북항일연군 조직체계 내에 속해 있었지만, 각기 분산적으로 진행된 유격전쟁 중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활동내용과 투쟁목표, 그리고 사회영향 등에서 그들은 분명히 “조선인민혁명군”⁹⁷⁾ 이었고 조선민족의 가장 우수하고 강력한 항일무장대오였다. 그해 5월에 동북항일연군 제2군 신편 제3사단(新編第三師) “김일성부대”는 장백산 지역에서 동북조선민족의 항일통일전선조직인 “재만조선인 조국광복회”(在滿朝鮮人祖國光復會)를 정식으로 조직하고 그 기관간행물인 『3·1월간』(三·一月刊)⁹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조국광복회조직은 조선국

96) 『金日成回忆录, 与世纪同行』(4), 朝鲜劳动党出版社1993年版, p. 249.

97) 김성호, 「四论“朝鲜人民革命军”说」, 『朝鲜·韩国历史研究』(10辑), 2009年版, pp. 324-354.

내에로 적극 발전하였는바, 함경남도 갑산군 등 지역들에서 “조선민족해방동맹”⁹⁹⁾ 등 조선국내의 반일통일전선조직을 조직하였으며 또한 보천보 전투(1937년 6월 4일)의 총소리를 울리기도 하였다.

동만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을 위주로 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과 후에 개편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은 주로 두만강 북안의 동만지역과 압록강 북안의 동변도지역 및 조선북부의 변경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완강하게 견지하였다. 이 특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제2군은 좁은 의미에서는 동북 각 형제민족들의 연합항일무장대오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중조 두 나라 인민의 항일연합부대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중국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가 일찍 “동북항일연군은 실제상에서 중조 두 나라 인민의 연합군이라고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¹⁰⁰⁾고 명확하게 지적한 바도 있다.

1940년부터 소련원동지역으로 전략전의(战略转移)하기 시작한 항일연군부대들은 1942년 8월에 통일적으로 소련원동홍군 독립보병 제88여단¹⁰¹⁾(대외번호는 8461부대, 국제여단이라고도 함, 중국학계에서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이라고 함)으로 개편되었다. 1945년 7월 일제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중공 동북당위원회(1942년 9월 건립)¹⁰²⁾는 부대 내의 대부분 조선민족 관병들은 조선으로 돌아가 공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일성, 최

98) 『金日成回忆录, 与世纪同行』(4), 1993年版, pp. 441-470.

99) 辛珠柏著, 『满洲地域韩人的民族运动史(1920~45)』, (韩国)亚西亚文化社出版, 1999年版, pp. 454-461 참조.

100) 中共吉林省委党史研究室, 吉林省东北抗日联军研究基金会编, 『韩光党史工作文集』, 中央文献出版社, 1997年版, p. 65.

101) 1944년 1월 6일,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은 원동군 총사령부가 소련 최고소비에트 주석단의 명령에 근거하여 수여하는 “소련 공농홍군 독립보병88여단”의 군기를 정식으로 수여받았음. 周保中, 『东北抗日游击日记』, p. 773쪽 참조. 교도여단은 “苏联远东红旗军第88独立步兵旅”, “远东第二方面军第88独立步兵旅” 등으로 불렸음.

102)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 1959년12월28~29日.

용건, 김책 등을 핵심으로 한 “조선공작단”(朝鮮工作團)을 새롭게 조직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적인 정치·군사조직역량으로 조선의 해방을 영접하게 하였다. 당시 조선에 독립적인 공산당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공작단이 바로 조선혁명의 영도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³⁾ 동북조선민족항일혁명투쟁의 역사과정을 보면, 조선공작단의 탄생은 바로 1931년 2월 중공 동만특위에서 조직한 “조선국내공작위원회”와 1936년 5월 “김일성부대”에서 조직한 “재만조선인 조국광복회”를 계승, 발전한 필연적인 역사결과이며 동북조선민족 공산주의자들의 특정된 시기의 “2중혁명사명”의 필연적인 역사귀속(历史归属)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연변지역에서 희생된 항일혁명열사는 모두 3,125명인데, 그중에서 조선민족은 무려 3,026명, 전체의 96.8%나 차지한다.¹⁰⁴⁾ 여기에서 보다시피 동북의 조선민족 특히는 연변의 조선민족인민들은 항일혁명투쟁에서 돌출한 공헌을 함과 동시에 거대한 희생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반에 조선민족의 저명한 공산주의자들인 김일성(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 사장, 제2방면군 지휘, 중공동북당위원회 부서기), 최용건(항일연군 제7군 당위서기, 대리 군장, 제2로군 총참모장, 중공동북당위원회 서기), 김책(항일연군 제3군 정치부주임, 중공 북만성위서기, 제3로군 정치위원), 허형식(항일연군 제7군 군장, 제3로군 총참모장), 이학복(항일연군 제2로군 제7군 군장), 이흥광(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제1사 사장 겸 정위), 이동광(남만 반일총회회장, 중공남만특위서기, 남만성위조직부장) 등이 중공 동북당조직과 군대조직에서 주요한 영도책임들을 담임한 것은 중공 동북당조직이 정확한 조선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한 구체적인 체현이 아닐 수 없으며

103) 金成镐, 「论东北抗联教导旅朝鲜民族群体及其历史地位」, 『延边大学学报』, 2019年第1期, pp. 43-51.

104) 崔圣春主编, 『延边人民抗日斗争史』, 延边人民出版社, 1997年版, 부록 《延边抗日烈士情况表(1)》 참조.

조선민족공산주의자들이 동북항일유격전쟁에서의 특수한 역사지위와 중대한 선봉모범작용과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

4. 맺는 말

중공 동북당조직이 조선민족항일혁명에 관한 방침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과 일부분의 기간 내에 이리저리한 부족한 점, 결점과 심지어는 동만당조직 내부에서의 반“민생단”투쟁 같은 극히 엄중한 시행착오도 범하였지만, 중공당의 맑스레닌주의 민족정책과 무산계급 국제주의 원칙을 집행하는 기본방향과 주요한 실천에서 기본상 정확하였다고 마땅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중공동북당조직은 장기간의 투쟁, 인식, 재투쟁, 재인식의 발전과정 중에서 날로 더욱 전면적이고 심각하게 동북조선민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투쟁실천중의 경험교훈들을 부단히 총화하고 점차적으로 동북조선민족의 역사특점, 항일혁명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일련의 정확한 방침정책들을 더욱 완미하게 제정하고 실천하게 되었는바, 예하면 동북의 조선이민들이 중국경내의 각 민족인민들과 동등한 사회권리를 가질 것을 주장하고 조선민족간부들을 믿고 중용하며 조선반일민족독립해방운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동만지역에서 장차 조선민족“자치구”를 건립할 것 등을 제출한 것 등이다.

중공당의 통일영도 하에서 동북조선민족 공산주의자들은 “2중혁명사명”을 짊어지고 동북의 여러 민족 인민들과 긴밀히 단결하여 함께 분투하였으며 동북항일유격전쟁에서 보다 중대한 작용을 일으키고 돌출한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장군, 최용건, 김책 등을 위수로 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견강한 영도핵심대오가 형성되었으며 중국조선족 사회의 제1대 혁명간부단체도 단련, 성장하게 되었다.

이 역사과정은 중공 동북당조직이 정확한 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한

투쟁의 역사기록이고 동북 각 형제민족들이 대단결을 실현하고 공동으로 항일혁명승리를 쟁취한 영광스러운 역사기록이며 동시에 중조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공동으로 항일하며 어깨 곁고 함께 동아세아 반일연합전선과 동방 반과쑸전쟁에서 선혈과 생명으로 현대 중조 두 나라의 혁명적 친선역사기초를 견실하게 마련한 빛나는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자 료】

伪满州国民政部总务司调查科编(1933), 『在满朝鲜人事情』, 大同二年12月14日.
朝鲜总督府编(1966), 『最近に於ける朝鲜治安状況』.
沈茹秋(1987), 『延边调查实录』(1931年) 延边大学出版社.
在满日本帝国大使馆编纂, 『在满朝鲜人概况』, 昭和9年版.
伪满州国军政部顾问部(1969), 『满洲共产匪研究』, 第一辑, 康德三年(1936).
中央档案馆, 辽宁省档案馆, 吉林省档案馆, 黑龙江省档案馆合编, 『东北地区
革命历史文件汇集』(甲 1-66권).

『东北地区

革命历史文件汇集』(乙 1-2권).

李勋求(1932), 『满洲와 朝鲜人』, 平壤崇实专门学校出版.
伪满州国军政部顾问部(1969), 『满洲共产匪の研究』, 第一辑.
秋宪树编(1975), 『资料韩国独立运动』, 第4卷下.
朝鲜总督府警务局编(1927), 『朝鲜の治安状況』, 昭和二年.
『中共中央文件选集』, 第一册, 中央党校出版社1992年版.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 1959年12月28~29日.
『东满地区革命历史文献汇编』(上册), 2000年版.
『廖如愿谈朝共党员加入中共问题』, 1961年12月20日.
『访问周保中同志记录』, 1960年5月30日.
『金日成回忆录, 与世纪同行』(4), 朝鲜劳动党出版社1993年版.
中共吉林省委党史研究室, 吉林省东北抗日联军研究基金会编(1997), 『韩光
党史工作文集』, 中央文献出版社.

【논 제】

李鸿文(1996), 『30年代朝鲜共产主义者在中国东北』, 东北师范大学出版社.
『朝鲜族研究论丛』(3), 延边人民出版社1991年版.
中共延边州委党史研究所编(1988), 『延边历史事件·党史人物录』.
김성호(2019), 「论东北抗联教导旅朝鲜民族群体及其历史地位」, 『延边大学学

报』, 第1期.

_____(2012), 「朝鲜民族共产主义者在中国东北抗日斗争中的地位 and 贡献」,
『世界历史』, 第三期.

_____(2009), 「四论“朝鲜人民革命军”说」, 『朝鲜·韩国历史研究』(10辑).

_____(2006), 『东满抗日革命斗争特殊性研究』,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_____(1999), 『1930年代民生团事件研究』, (韩国)白山资料院出版.

辛珠柏(1999), 『满洲地域韩人的民族运动史(1920~45)』, (韩国)亚西亚文化社
出版.

崔圣春主编(1997), 『延边人民抗日斗争史』, 延边人民出版社.

원고 접수일: 2020년 4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0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7일

内 容 提 要

中共东北党组织关于朝鲜民族抗日革命斗争的认识
及其方针政策

金成镐*

中国东北的朝鲜民族是19世纪中叶开始从朝鲜半岛越境迁入而逐渐形成的新的少数民族。1910年朝鲜被日本强制吞并之后，朝鲜爱国志士们纷纷转移到中国东北地区，以朝鲜民族移民社会为基础，继续进行反日民族斗争。1921年成立的中国共产党，诞生伊始就遵循马列主义的民族理论，始终如一地为了实现各民族平等，团结和解放而努力奋斗，一开始就对东北朝鲜民族的抗日斗争坚持同情和支持的认识和方针。

1930年以来，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根据共产国际的“一国一党”组织原则和朝鲜共产党中央组织业已解体的实际情况，大都以个人身份加入中共东北党组织，直接参加了中国东北革命运动。中共东北党组织在统一领导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进行长期的抗日革命运动中，进一步了解和正确认识朝鲜民族，并且不断地接受其经验教训，逐步制定和贯彻执行了基本符合东北朝鲜民族历史特点及其抗日革命特殊性的一系列正确的方针政策。其主要内容是充分信任和重用朝鲜民族革命干部，积极支援朝鲜反日民族独立解放运动，主张在中国朝鲜民族聚居地东满地区推翻日帝殖民统治，将建立朝鲜民族“自治区”等。

* 中国 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历史研究所 特聘研究员

在中国共产党正确的统一领导下，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肩负要完成中国革命和朝鲜革命的“双重革命使命”，与东北各族人民紧密团结，并肩战斗，并在东北抗日游击战争中占有重要的地位，发挥重大的作用，做出了突出的贡献。在这一过程中逐步形成了以金日成将军为首的朝鲜共产主义革命久经考验的坚强的领导核心队伍，也培养了中国朝鲜族社会第一代革命干部群体。

这一段历史是中国共产党制定和执行正确的朝鲜民族方针政策的伟大的斗争历史，是东北各族人民实现大团结，共同取得抗日革命胜利的光辉的历史记录，同时，是中朝两国人民在东方反法西斯战场并肩战斗，共同用鲜血和生命奠定中朝两国革命“同志加兄弟”的坚实友谊关系的宝贵的历史过程。